

# AI 만난 부동산중개업 창업자 몰린다

### 에너지절감 AI플랫폼·VR중개 등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인기 부동산 중개 넘어서 투자 자문·주거 부동산 관리업 등 업태 다양 광주·전남 부동산중개업자 3년 새 1500명 급증...6000명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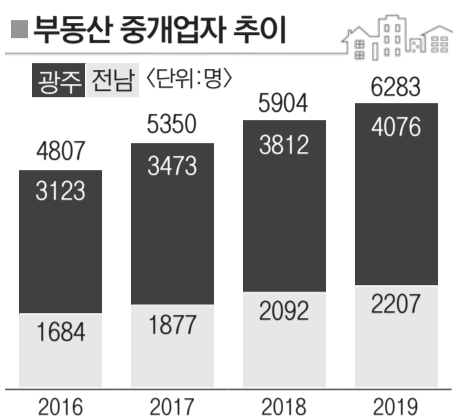
연 매출 40조원 규모 부동산서비스 산업이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만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기준 부동산 관련서비스 사업체는 전국 13만7000여 개였고, 이들 총 매출은 38조4524억원에 달했다. 부동산서비스업 종사자는 42만5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산업 성장세에 맞춰 지역 중개업 창업도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는 광주 4076명 전남 2207명 등 총 628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4807명(광주 3123명·전남 1684명)이었던 중개업자는 2017년 5350명(광주 3473명·전남 1877명)→2018년 5904명(광주 3812명·전남 2092명)→2019년 6283명(광주 4076명·전남 2207명)으로 늘었다. 3년 새 지역 중개업자는 30.7%(1500명) 증가하면서 지난해 6000명을 돌파했다.



부동산서비스 산업은 부동산 중개·대리업 뿐만 아니라 투자 자문, 감정 평가,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등 업태가 다양하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GPS(위성항법장치)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빅데이터는 부동산 서비스 예비창업자에게 단골 소재로 쓰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지난 2018년 최우수상을 받은 '나

인와트' 팀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절감 AI플랫폼을 만들어내 건물에너지 효율성을 높였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주거웰빙지수' '아파트 내재 가치지수'를 산정하거나 3D 도시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가설계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나왔다. 국내에서 동지를 트려는 외국인들을 위해 가상현실(VR) 중개를 하거나 룸메이트(동반 거주자) 연결, 이사·가구업체 추천, 해외배송 확인 등 서비스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부동산산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적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감정원과 '2020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부동산 이용·관리 등 부동산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 접수는 오는 5월25일까지 받는다. 서류심사 및 창업캠프 등을 거쳐 8월5일 최종 수상팀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작 수상자는 ▲성공 창업가와 만남 ▲분야별 압대 일 전문가 멘토링 ▲투자유치전략 교육 ▲창업캠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8주 동안 참여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오는 4월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롭테크(부동산 기술) 분야 창업교육프로그램'(총16회)을 별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계현 원장의

## 특 특 창업이야기



###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지원정책

매일 수백 명씩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코로나 확진자가 9일을 기점으로 100명대로 떨어지며 한풀 꺾이는 양상이다. 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역량과 집중력을 발휘하고 그 토대 위에 의료계의 헌신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매출에 지명상을 입고 힘들게 버티며 언제 상황이 종료될지 모를 불안한 마음만 가득했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잠으로 다행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아직도 안심할 단계라고 판단하긴 이르지만 적어도 뭔가 나아지는 현상은 매출 급감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희망적인 '시그널'이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반의 움직임이 얼어붙다 보니 일부 업종을 제외한 다수의 업종들이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기업에 비해 예비 운영자금 보유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일반 소상공인들의 운영난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난 4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확정된 소상공인 관련 주요 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상공인 운영자금 대출과 관련한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 경영자금 융자규모를 1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대폭 인하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연 1%대 초저금리 대출공급 규모를 현행 1조2000억원 규모에서 3조2000억원으로 2조원을 증액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관련 특별보증을 하되 그 기준은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도소매, 음식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주 대상으로 하며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을 한다. 이 지원정책은 소상공인 기준인 5인 미만과 큰 차이가 없는 직원이 6인 미만이거나 7인 미만인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외감을 느끼는 정책이기에 정부도 이에 대한 고민을 추가로 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고용유지와 '착한 임대인운동' 확산에 관한 예산으로 6000억원을 책정했다. 고용유지 지원내용은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에 4개월간 1인당 월 7만원씩 임금을 보조한다. 현행 5인 이하 사업장 1인당 월 11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에다가 7만원이 더해져서 지원되는 형태다. 이 지원정책은 매출이 50~6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고용유지에 대한 책임감을 유지시키는 지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느낌이 든다. 정부 추경예산의 한계가 있기에 일견 이해가 되면서도 아쉬운 대목이다. 착한임대인운동 지원내용은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인화한 임대료의 50%를 건물주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해 일시 폐쇄된 영업장이나 영향을 받은 영업장 등에 위생안전과 현장컨설팅 후 재개업 행사, 홍보마케팅 등을 위한 지원자금도 372억원이 배정됐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입점 및 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광고 지원에 115억원을 편성했다. 이렇듯 코로나 관련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들이 준비되거나 실행중인데 통상 정부 지원정책사업의 맹점이 한계는 지원 대상은 많은데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기에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도 종료된다는 점이다. 결국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들의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하기에 빠른 신청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 할 지라도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일반 시중은행들과의 상담을 통해 예비 운영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 '혁신 시제품 지정·구매' 올해 정규사업 본격 추진

#### 조달청, 선정기업 판로 확대 지원도

최대 5억원 규모 공공조달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혁신 시제품 지정·구매'가 올해부터 정규사업으로 시행된다.

광주지방조달청은 혁신조달 종합포털 '혁신장터'에 '2020년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공고를 게재하고 혁신 시제품 지정·구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혁신 시제품 구매사업'은 정부가 상용화된 혁신제품의 초기 구매자가 되는 조달 방식이다. 혁신장터에 등록되면 공공기관이라도 조달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지정분야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규제특례심의를 통과한 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혁신 시제품 지정 분야는 안전·환경 등 국민생활문제 전 분야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인공지능(AI), 로봇이 포함된다.

1개 제안당 시범구매 금액은 지난해보다 2억원 오른 최고 5억원이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혁신 시제품에 선정된 기업은 광주 ㈜드림씨엔지·강진 ㈜로우카본테크 등 6개 업체다. 이들 제품은 공공기관 테스트로 품질·성능을 검증한 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대 등을 통해 판로 확대를 지원받게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aT, 중소식품기업 식품안전관리 인증 컨설팅

#### 20일까지 전문위원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소기업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썬)을 돕는다.

aT는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품질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전문위원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컨설팅 지원분야는 총 7개 분야로 ▲HACCP 인증준비 ▲ISO(국제표준화기구) 22000/FSSC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준비 ▲GMP(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 지정준비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공정 품질개선 ▲상품품질개선 ▲디지털품질개선 등이 있다.

참여 식품기업은 컨설팅 현장지도 횟수 및 자부담금에 따라 '단기역량제고'와 '심층역량제고' 사업 중 선택할 수 있다. '단기역량제고' 사업은 7개 컨설팅 분야 중 1개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의 현장지도 교육(5~8회)으로 진행되며, '심층역량제고'는 전문 컨설팅사가 인증 및 제품개선을 위한 전과정을 밀착 관리한다.

신청은 단기역량제고는 오는 8월31일, 심층역량제고는 3월31일까지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단기역량제고 컨설팅사업에 함께할 위생·안전, 품질개선 분야 전문위원 80명은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aT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등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aT 전문위원 상담 모습. <aT 제공>

지역 HACCP 인증완료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광주 265개·전남 1685개 등 1950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인증업체 1만8779개의 10.3% 수준이다.

aT는 지난해 광주 2개·전남 6개 등 190여 개의 중소기업업을 대상으로 HACCP 인증을 위한 '식품 품질·위생 역량제고 지원사업'을 벌였다.

손용규 aT 식품기업지원센터장은 "HACCP 의무품목 확대 등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리는 중소기업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라며 "위생·안전관련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